

블록체인 응용 무궁무진!

GIST 이흥노 교수

2018년 2월 7일

유시민 작가는 역시 대단 했습니다.
비트코인 기술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블록체인은 공개된 장부인데, 위변조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채굴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
채굴해 주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코인을 발행하고 채굴자에게 나눠준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재적 가치는 없는데,
사람들을 끌어 모아 가치를 높이는 이런 게 바로 폰지 사기다.
“비트코인 기술은 공학자들의 장난감에 불과하며,
거래소와 투기꾼들이 이 장난감을 이용해 만들어낸
인류역사 상 최대 사기극”이라고 결론짓고 말았습니다.
영향력이 매우 큰 분이, 용감하게, 또 매우 설득력 있게
잘 못된 결론을 내리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시민 작가 뿐 만이 아닙니다.
워런버핏은 “비트코인은 버블이다.” 라고 하였고,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고 선언하였지요.

정재승 교수처럼 정 반대 입장에 서서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애플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은
“비트코인은 금이나 달러보다도 낫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라가르드 IMF총재는
“암호화폐가 기존 통화를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지요.
뭐가 맞는 것인지, 누가 옳은 것인지 헷갈립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맞기 때문입니다.

한 쪽은 새로운 기술이, 실익은 없고, 사용하기는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한, 구체적 현실을 이야기 합니다.

다른 한 편은 그 새로운 것이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인가, 가능성, 즉 추상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지요.

현실에 발을 딛고 보는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것이 신기하기는 하지만,
쓰기에 편리하지도 않고, 부작용만 보이기 때문에,
“쓸모없다.” 라고 말 하는 것입니다.
가령, 너무 느리다. 1초당 거래 7개 밖에 못 한다.
또, 가치가 너무 빨리 변해서 가치의 척도를 제공하지 못 한다
등 등
그래서 통화는커녕, 화폐 역할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응용을 보는 입장에서는,
현재는 제약이 많지만,
어디에 그 기술이 쓰일 수 있는 지 생각해보고,
미래를 앞당겨 현실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전 세계의 과학기술자들과 경쟁을 하며 기술을 개발해온 공학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느리다,” “빨리 변한다” 와 같은 불평은
시간이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저는 90년대에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무선이동통신이 미래기술로 주목 받을 때 였습니다.
제가 97년에 논문을 발표하러 학회에 갔습니다.
미래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패널토론에서,
학계의 원로가 실시간 비데오 이동통신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 때 저의 머릿속에 든 생각입니다.
야. 무슨, 음성통화도 어려운 판에 실시간 화상 통화냐.
연구비 따 널려고, 논문 게재 하려고 비약이 너무 심하다.
그런 게 개발 되었다 쳐도, 얼마나 비쌀 것이며,
필요한 사람이 몇 이나 되겠냐,
경제성 제로다, 등등을 생각 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핸드폰 시스템을 보십시오.
예전에는 전부 말도 안 되고, 상상도 못 했던 것들 입니다.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현재로서는,
국경을 초월한 송금수단 정도로만 쓰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불법증여, 세금탈루, 마약거래 등 음성적 사용 위험성도 큼니다.

그러나 기술의 부작용은 추적기술 개발로 막을 수 있습니다.
기술의 오남용은 법과 제도의 운용으로 퇴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투자행위와 시장과열은, 투자 위험성을 알리고
교육하는 것을 통해 가라앉혀야 할 부분입니다.

제 2세대, 제 3세대 코인시스템 개발이 빠릅니다.
처리속도와 불법거래 추적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기술은
누가 돈 들여 키우지 않았는데도, 생겨 난지 10년도 안 돼서,
지갑을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전 세계에서 2천5백만명에 육박하였고,
시장가치를 인정받아 높은 값에 거래되는 혁신입니다.

문제는 이 혁신기술이
어떻게 세상을 더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 받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는
인터넷 속 가상세계가 현실세계와 일치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블록체인은 가상세계 속 거래를 현실 거래가 되도록 합니다.
블록체인은 핸드폰을 가진 개인은 누구나,
정치, 경제, 사회 등 인간의 주요 활동영역에서,
타인과 신뢰에 기반 한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구성원 간 공정거래 및 계약이행을 위하여
사법시스템과 공권력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많은 사회적 인프라 비용을 지출합니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낮추고,
개인 간 직거래와 상호작용을 크게 촉진 할 것으로 기대 받고 있습니다.

연결하는 것이 창의성입니다.

신뢰에 기반 한 인간 상호작용과 교류범위의 확대는,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은 낮추고,
생산성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신뢰사회를 추동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칼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루는 사회적 변화의 방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